

윤리경영 선포식 사장님 연설문

존경하는 대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매우 뜻 깊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터를 지켜나가는 새로운 이념을 선포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
니다.

이 시점에 “윤리경영”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도입하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
만,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것 외에도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
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몇 년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BMW의 차량화재,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남양유업의 일명 '물량 밀어내기' 납품방식이 알려지면
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매운동까지 일어났었고 예천군의회원이 외유성 외국연수
기간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술집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
지고 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도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윤리란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인데, 이 의미를 곱
씹어 보면, 도덕적 성향, 즉 예의범절과 법률적 성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윤리적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
는 것입니다.

저는 윤리적 마음가짐을 “존중”이라고 표현할까 합니다.

기업윤리의 실천을 위하여 존중해야 할 대상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자신의 존중” 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사성어는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 가정을 돌보고, 그 후 나라를 다스리며, 그런 다음 천하를 평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기본인 자기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가다듬으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존중" 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면 공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서 건전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조직과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훈 중 첫 번째 '화합'은 곧 '타인의 존중'인 것으로, 우리 대솔가족 여러분은 서로 존중하며 화합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회 존중" 입니다.

우리 대솔가족도 사회 구성원 중 하나 입니다.

더 좋은 사회, 나아가 더 좋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를 존중하는 방법에는 환경보호, 봉사활동 및 기부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이미 해왔던 것이므로 현상을 유지하고,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하기만 해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솔그룹이 우리사회의 좋은 일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윤리적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는 기업 또한 좋은 일터의 조건일 것입니다.

오늘 선포하는 윤리경영을 통해 자신과 고객, 그리고 회사가 모두 만족하는 좋은 일터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